

▲클럽정보

내정보

빛나는 그룹

- 클럽장:
- 개설일: 2009.04.06 [소개]
- 회원수: 21 [주소록]

클럽초대

클럽 글쓰기

- 전체글보기(47)
- 전체사진보기(1)
- 사진 슬라이드 보기

프리북

공지사항

소근소근

난나가누군지몰라

수다 한판!

신문고

특별한그녀들

수업권

반성폭력

복지

2009여성현실제

2009 WomFilmFestival

자료실

전체댓글

내글댓글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발자국

클럽회원 파도타기 ----- ▼

클럽탈퇴

전체글보기: 반성폭력

청정강의 서명 교수님께 드릴 제안서 초안 주소복사

2009.08.20 13:59

조회 10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 22대 총여학생회 <ACTION! 미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요즘 강의실 언어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대 총장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감칠맛' 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을 비롯하여,

각 학교마다 강의 중 언어 성차별/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늘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한 유명 사립대의 성폭력 상담소에서 밝힌 강의 중 언어성차별/성폭력 내용 중에는

▲여성비하 발언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담긴 발언 ▲성적농담 및 음담패설 등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집에 가서 애나 보라", "자고로 모든 문제는 여자 때문에 발생한다" 등의 발언 뿐만이 아니라

여학생이 많은 곳에서 "여기 물 쯤네"라고 하거나 "희소가치가 높은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는

한 학생이 "여자"라고 답하자 "아니다, 처녀다"라며 상식 이하의 답을 제시한 교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에는 고려대학교 정경대에서는 전공수업 강의 중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행을 당하고 싶은데 못 당하는 늬어가는 여자의 심정과 같다"고 발언하여 강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어 성차별/성폭력에 대해서 반대와 거부의 의사를 보이기에겐 몹시 힘듭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농담삼아 던진 말이 이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언어 성차별/성폭력이 행해지지 않는 '청정강의'를 진행하자는 캠페인을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내 특히 강의 중 이루어지는 언어 성차별/성폭력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앞장서서 반대하시고

남학우와 여학우 모두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쾌해지는 일이 없는 강의를 진행하시겠다고 다짐해주시는

'청정강의 서명운동'을 함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청정강의 서명운동은 저희 총여학생회와 단위대학 학생회가 함께 진행하며, 교수님들을 방문하여 '청정 강의 진행 및 언어 성차별/성폭력 반

대' 서명을 받으면서 진행될 것입니다. 전 교수님들께서 모두 서명해 주신다면 일간지를 통해 교수님들과 함께한 캠페인의 성과를 공개하

고, 서명된 용지를 모아 학교 본부에 전달하고 사본을 각 학생회실마다 비치할 예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복지의 증가로 가시적인 차별이 완화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논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은 그에대한 거부와 반대의 의사표시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교수님들께서 더욱 잘 아실겁니다.

양적인 차별이 아니라 질적인 차별에 대하여 이제는 이야기를 할 때이며, 질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자부심이 명문대학교라는 자부심 뿐만이 아니라 강의 중 언어 성차별/성폭력이 없고 교수님들께서 앞장서서 언어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한다는 자부심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리며, 2009년 2학기에도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내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2대 총여학생회 <ACTION! 미미> 올림.
총여학생회장